



불교 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2007년 9월 1일  
음력 7월 20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구독문의 02-552-1080

The chongji news

불기 2551년 제94호

사건너득 명아

## “원정 대성사 유지 받들어 무명 밝히는 등대 돼야”

### 창종조 원정 대성사 27주기 멸도절



총지중 창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27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효강 종령예하는 멸도절에 즈음하여 “총지중 종도들은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화합과 단결로써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대한국불교의 개척자이며 정통밀교 종단인 총지중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이다.

1980년 9월 8일 원적에 들기까지 대성사는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

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총지중과 진각종의 산과 역할을 하며 한국 현대 밀교사 수립에 걸인차 역할을 했다.

원정 대성사는 초창기의 교리적, 행정적 착오를 반성하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총본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노력했다. 대성사는 《종조법설집》을 비롯하여 총지중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번역 발간하였고, 대장경의 핵심을 모은 《불교총론》 등을 편찬하기도 했다.

〈관련특집 12면〉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아이들이 8월 27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전시회에서 동심을 함꼐 담은 작품을 발표했다.

## 제7회 경로법회 원만 회향

### 경로 효친 사상 선양



불교총지중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호 리조트에서 제7회 경로법회를 개최했다. ‘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경로법회에 전국 각 교구 65세 이상 어르신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경로법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임제식과 노래경연대회, 저녁정승, 연예인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엔 온천욕과 회향식, 관불이 이어졌다.

이번 법회에 참석한 권영순 어르신(82, 정각사)은 “종단에서 경로잔치를 마련해 주어 아주 즐겁고 흡족하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각처에 흩어져 지내던 도반들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지정 정사는 “종단 교도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각 지역 사원 교도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경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준비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관련 특집화보 10면〉

## “아름다운 전당에서 밀법 흥포”

### 내달 11일 포항 수인사 헌공불사 예정



수인사는 총기 원년 신관동 소재 3층 빌딩 중 2층을 임대하여 포항선교부로 개설하고 총기 3년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매수하여 수인사 사찰로 사용해 왔다. 수인사는 전 종령 특정 대종사, 복지화전수가 교화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교도들의 신생활동이 활발한 사원이기도 하다.

수인사 산책설계는 부산 덕화사를 설계한 ‘경주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한 바 있다. 경주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는 “부산 덕화사를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인사도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설계 시공했다”며, “스승님과 교도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종보통신원은 종보 모니터링과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 개진, 각 지역 기사작성과 제보, 소송교구 교도들의 신생활이나 미담 등의 소식도 전할 예정이다.

## 종보통신원 발대식 이르면 내달

### “종보의 질적 향상 기대”



수인사는 다음 달 11일 수인사 서원당에서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종단의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을 모시고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사원신축불사 마무리한 수인사는 연건평 380평 지상 4층의 아름다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됐으며, 경북지역의 수행과 문화, 복지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현과 밀법 포교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지중 전당건설 위원회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 제석사에서 전당건설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수인사 신축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설계를 확정된 바 있다.

## 종조법설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외형(外形)은 내성(內性)을 닮아 난다. 즉 육체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일체는 유심조(唯心造)다. 회복도 그 마음에 달렸다.

##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의 멸도절 추선불사에 많은 교도들의 동참 바랍니다.

- ◆ 일 시 : 총기36년(2007년) 9월 8일
- ◆ 장 소 : 전국 각 사원
- ◆ 서울·경인 교구는 총지사에서 지방은 각 교구별·사원별로 추선불사를 병행함



불교 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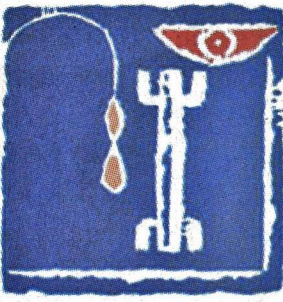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풍경소리

작은 슬씨가 푸른 소나무 되네



"그래, 그 세 가지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첫째는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식들 좋은데 혼인 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네."  
 그러나 그 친구는 세 가지를 이루기도 전에 생  
 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 정작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환상만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요?  
 - 도수 스님

자기를 찌는 도끼에 항기를 내뿜다.



성난 말에 성난 말로 대꾸하지 말라  
 말다툼은 언제나 두번째 성난 말에서 비롯된다.  
 훌륭한 사람이란 한나무처럼  
 자기를 찌는 도끼에게 항을 내뿜는 사람이다.  
 - 이정우(군중법사)

바쁘게 할 일

어떤 수행자가 세속의 친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도 이런 마음을 내어 수행하는 것  
 이 어떨겠는가?  
 영혼도 가꾸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셈이네.  
 중요한 일 세 가지만 끝내놓고 말일세."

- 용성스님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말고

-천수경편 제19화- 글.그림/정수일

대성사님, 정말 "영사멸제제죄업" 이 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 안 당네.

임? 갑자기 왜 눈을 가리고 그러세요.  
 자, 이제 잘 보이죠?  
 그... 그야...  
 업장소멸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둠만 사라지면 광명이 비치는 것처럼요...

블교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이 "업사상"과 "인과의 법칙" 이랍니다.

선인선과요! 악인악과라...!  
 떠... 떠입술 각자님.

선한 인연을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인연을 심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그 말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맨날 좋은 일을 해도 백수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복권에 평생 당첨만 잘 되더라고요...  
 시끄러! 확 그냥 장작을 패버릴 까보다.  
 구입을 짓지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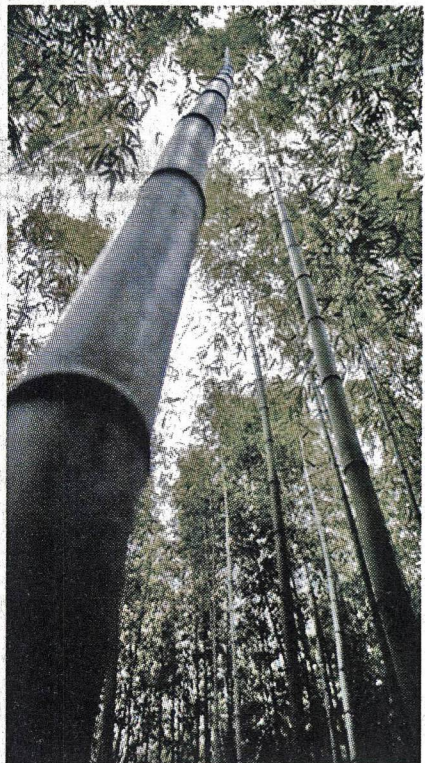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인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그러나 그 열매가 익은 후 선인은 분명 복을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도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열매가 익은 후 악인은 분명 화를 만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부처님 공부 하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자, 천수경 진도를 계속 나가볼까요?  
 아자! 힘내자.

부처님 법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동서고금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것입니다.  
 천룡종성동자호(天龍宗聖同慈護) 백천삼매돈훈수(百千三昧頓薰修)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달의 명상

건강을 불러내는 법



혹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기 위해 '건강해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해야지' 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래 병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믿고 행동할 때 건강은 나타난다.

누가 "그 사이 건강하세요?" 할 때 "네!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하고 명쾌하게 대답하자. 그럴 때 생명은 조절되고 활기는 넘쳐나고 충실한 건강이 전면에 나타난다. 말이 건강을 불러내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중에서

(주) 에스엠 커머스(생활가전/건강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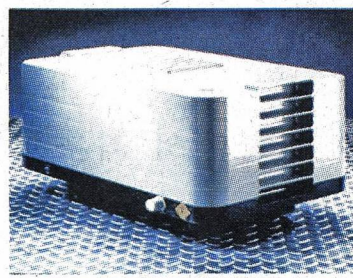
“ 시원한 가격에서, 고급스런 디자인에서 두 번 만족을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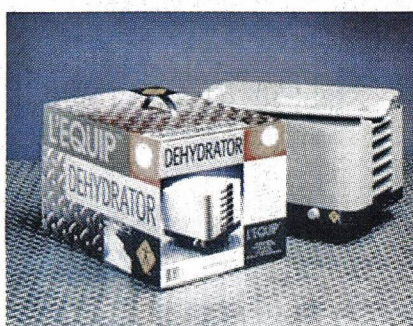
• 제품명:대원 테이블 전기그릴 • 모 델:DWP-331  
 • 특 징:조리팬,본체 분리형, 식탁에서 요리하면서 사용가능  
 골드마블코팅처리  
 • 가 격: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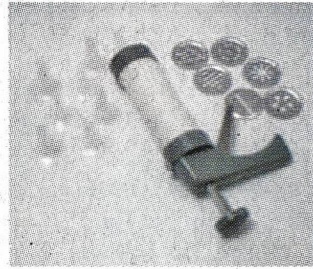
• 제품명:피자팬 • 모 델:MU-1600N  
 • 특 징:자동 온도조절 방식, 피자,부침,후라이,전골,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가능  
 • 가 격:24,900



• LD-528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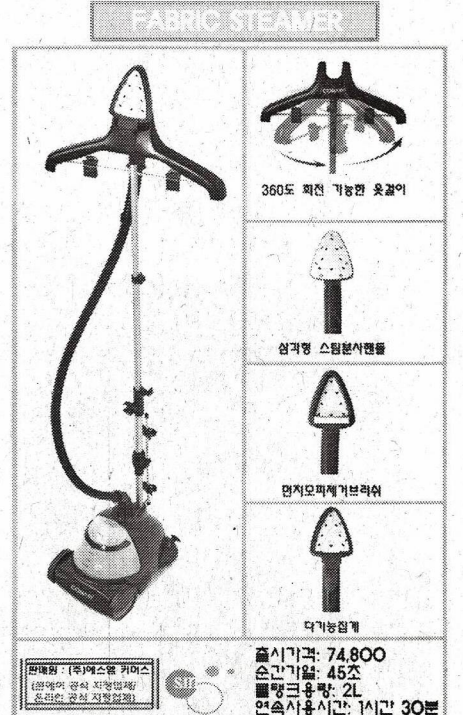
• 제품명:음식건조기 • 모 델:LDDD-528  
 • 특 징:과일, 야채 건조 웰빙 상품  
 기본6단+네트+슬리드Tray2개  
 • 가 격:소비자가 128,000(판매가 105,000)



• 리캡저 키친(벌매)

☆ 스타다리의 대표 브랜드... ☆  
 << 인기상품! >> 콘 에어 스타다리

CONAIR GSK Professional



(주) 에스엠 커머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품 기획전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구입 문의 02·3431·0388(代) 팩스 02·3431·024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11-1번지







# 총지문예



김영관  
동해중학교 3학년 4반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이미 열린 이웃집의 문설주를 쫓아 불을 때워 식사를 하고 있던 난쟁이 일가의 자신들의 집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눈물과 함께 삼켜야 했을 것이다. 식사를 마친 지섭은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의 절규는 나의 가슴을 몽클하게 만들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인쇄소 제본 공장에 나가고 영수는 인쇄 공무부 조역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간다. 영호와 영화도 몇 달 간격으로 학교를 그만둔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의 값이 뛰어오르고 영수네도

## 힘겨운 삶을 보며 귀한 아름다움 느껴

했습시다. 천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시다. 오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렇다. 그 집은 오백 년에 걸쳐 지어진 집이었다. 영수가 인쇄한 옛날 노비 문서에서 보듯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은 수 대에 걸친 것이었으며 그 갈등의 대상은 변함이 없었다.

그 집은 난쟁이 일가에게는 수 대에 걸친 핍박을 해치고 겨우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 였던 것이다.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내뱉는 지섭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전세값을 갖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영화는 집을 나간다. 영화는 승용차를 타고 온 그 투기업자 사무실에서 일하며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 투기업자를 마주시키고 가방 속에 있는 입주권과 돈을 가지고 행복등으로 향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하고 만 뒤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리던 달나라로 떠난 것이었다. 그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함께 말이다. 그가 쏘아올린 공은 사람

이요 희망이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난쟁이의 대사와 같이 사람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니리아재비꽃 줄기에 까지 머물게 하는 그런 달나라를 희망하여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때도 행해져 왔고 어쩌면 지금도 일부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현실을 알아 간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놀려 버리고 작은 난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다.

그러나 난쟁이들에게는 늘 희망과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난쟁이를 난쟁이에게 하며 난쟁이가 있기에 거인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들이다. 사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감히 내 자신에게 던질 용기가 없다.

하지만 내 자신이 난쟁이인 사실이 자랑스럽다. 아직 거인들에게 없는 '사랑'과 '희망'이 내 안에 숨어 있을 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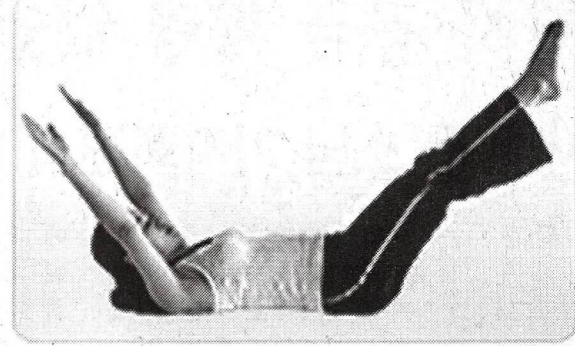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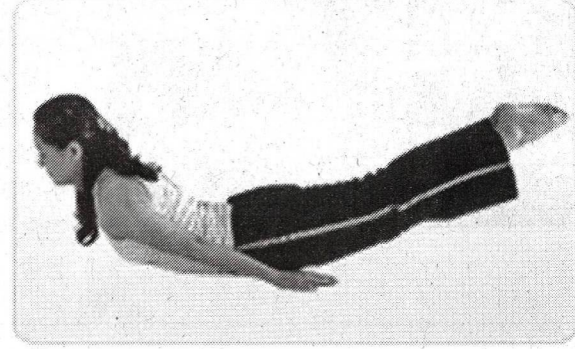
거대한 모든 것도 무섭지 않다. 사랑이 있다면 나를 소외시키고 난쟁이들을 소외시키는 사회의 모든 것까지 사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희망과 사랑을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 이달의 생활요가

### 셀프요가의 원리

#### ▷힘주어 버티는 원리

- 뼈를 튼튼하게 한다.
- 집을 지을 때 땅을 밟아 터를 다지듯 몸을 탄탄하게 다져준다.
- 몸속에 열기를 형성시켜 몸을 따뜻하게 한다.
-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건강한 체질로, 삶이 잘짜는 사람을 삶이 잘 안짜는 체질로 개선시키는 제일 중요한 원리이다.



버티는 원리는 요가 자세를 취하고 일정시간 유지한다는 말이다. 자세를 유지하면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힘이 들어가게 되며 그 힘은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숙이 자극하게 되며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에너지(힘)를 저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는 크게 보면 뼈와 살로 되어 있다. 사람은 음식과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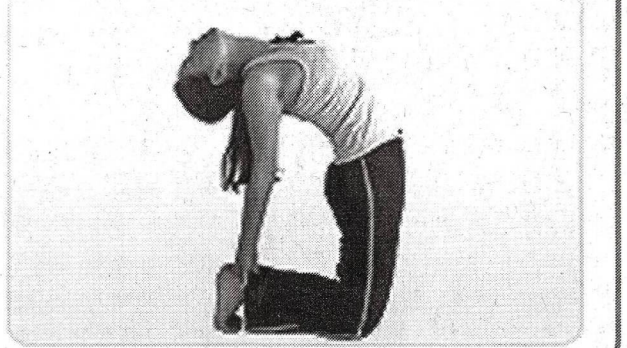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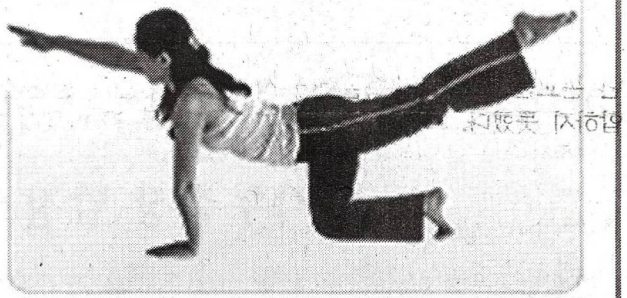
그런데 그 에너지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그 힘이 빠로 가는 에너지가 강하나 살로 가는 에너지가 강하냐에 따라 체형이 결정된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잘 찌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살이 찌지 않는다. 이것은 내장의 흡수력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흡수된 영양에너지도 결국은 몸 안에서 강한 것이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살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살에 에너지가 형성되어 살이 잘 찌게 되고 뼈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뼈를 이루는 에너지로 형성되어 뼈의 골밀도와 에너지 밀도를 강하게 한다.

뼈가 강한 사람치고 몸이 약한 사람없으며 뼈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쉽게 비만해지지 않는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우유속의 풍부한 칼슘에 의해 뼈의 에너지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칼슘이 부족하면 비만이 되기 쉽다는 것도 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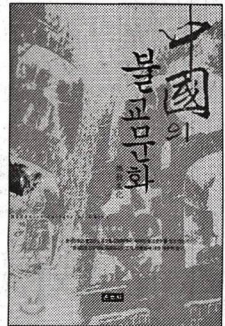


## 이달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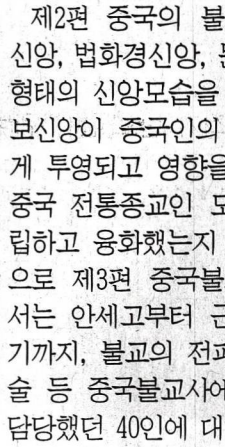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지옥 선사 저 · 이문 박태선 역/ 불광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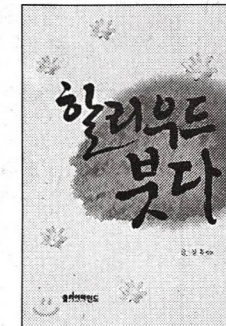
과경 엮음 · 각산 정영규 옮김/ 불광출판



교가 확산되면서 겪게 되는 중국 전통문리와의 갈등과 융화의 양상, 역경삼장을 중심으로 한 불경의 번역, 중국 불교의 특색이기도 한 종파불교의 주장과 전개, 민중과 함께하는 중국불교의 다양한 모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열어 문드러지면 반드시 희박되며, 낮(찬란한 시절)이 있으면 다음에 반드시 배어 죽음이 있다. 무슨 말인가. 화를 당한 다음에는 복이 차례를 바꿔 타고, 복을 받은 다음에는 화가 차례를 바꿔 탄다. 역(易)을 공부하는 자라면 응당 상(相)을 보고 말씀을 음미하며, 변화를 보고 점(占)을 가지고 놀아야 한다.



한다.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할리우드의 거물급 대 스타들은 할리우드 부디스트 비기즈라 부른다. 저자는 미국에서의 부디즘은 어느 컬트나 광신집단의 이벤트처럼 요란하게 스텝과 마는 일과성 현상이 아니라, 지속성과 확산성을 확인받을 가치관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리처드 기어, 샤론 스톤 등 할리우드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고마워요 자비명상

마기스님 이주영 저 / 불광출판

자비명상의 지침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고마워요, 자비명상』.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인 마음의 '자비심'을 키우게 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가족간의 화합을 위한 지침과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 중국의 불교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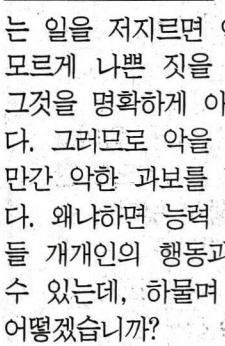
차차서 편저 / 운주사

중국인의 불교문화와 불교신앙에 대한 이해의 길잡이. 제1편 불교문화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관련된 여러 설들과 초기 중국불교의 모습, 그리고 불

### 할리우드 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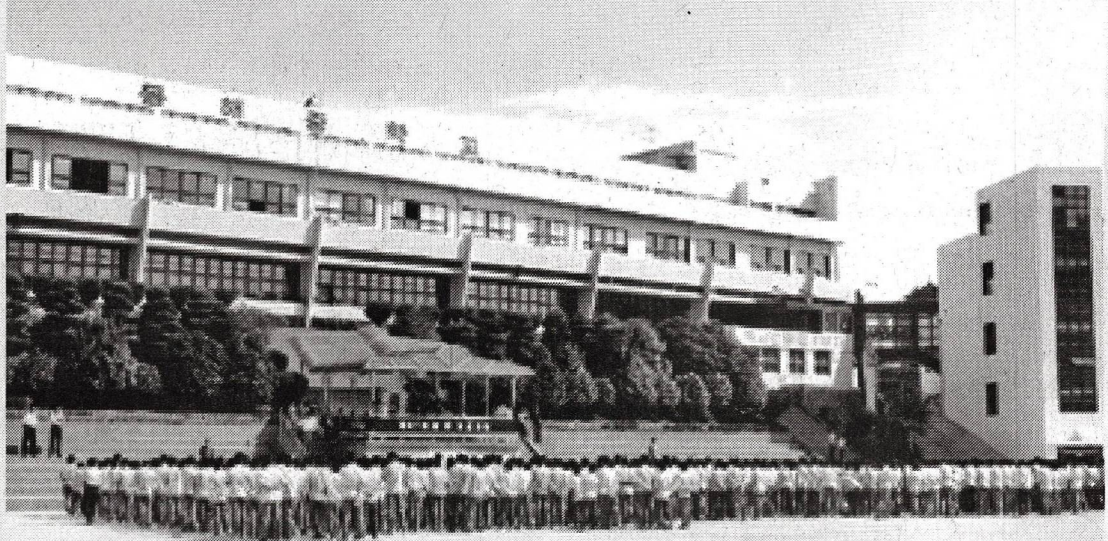
성휴 저 / 클리어마인드

할리우드와 뉴욕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중음악과 영상물을 통한 불교적 색채의 새로운 트렌드를 부디테인먼트라



### 주역년해(周易禪解)

# 개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개교기념일 행사안내

- 일시 : 9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 동해중 운동장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 동국대 에너지·환경 특성화 센터 건립

### 국고 등 40여억원 투입



◇동국대 특성화센터 도감도

동국대가 시대 요구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매진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자연 과학관 주차장 일대에 특성화 센터를 건립한다. 특성화 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교육 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동국대가 국고지원금 29억 원 등 총 4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시설이다.

특성화 센터는 에너지와 환경을 특화시킨다는 학교의 목표에 따라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이 마련되고, 특성화 사업단 연구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상 4층에 건물연면적 3400㎡(1000여 평) 규모로 건립되는 특성화 센터는 일반연구실과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실험실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

손동진 부총장은 "환경공학(ET) 분야를 특화 사업으로 육성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특성화 센터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 조계종 전법회관 기공식

### 지하2층 지상9층...2008년 6월 완공



◇9월3일 열린 조계종 전법회관 기공식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참석대중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불교 전법 구현의 중심점이 될 조계종 전법회관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조계종 전법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현문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9월 3일 전 불교신문 사옥에서 전법회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첫 삽을 뜬 조계종 전법회관은 지난 2006년 9월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중앙신도

회, 사회복지재단이 첫 실무협의 를 진행한 이래, 1년 만에 이론 성과다. 전법회관은 대지면적 560.10㎡(169평)에 지상9층 지하2층, 전체 연면적 3451.36㎡(1044평) 규모로 세워진다.

대강당과 2곳의 중규모 교양장, 6개 층의 업무시설, 1개 층의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8~9층 은 스님들의 요사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회관에는 불교신문사와 중앙신도회, 조계종 복지재단 을 비롯해 총 12개 포교, 실행단체가 입주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조계사 시민선방이 수행을 의미한다면 전법회관은 포교하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이로써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수행과 포교를 전법으로 이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완공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튼튼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조성되기를 염원하며 부처님의 말씀이 곳곳에 퍼지는 원력이 실현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은 "전법회관은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토록 전승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통해 불자들이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고 불교의 미래 백년대계를 든든하게 외호하는 신장이 되기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법회관은 이날 참석 대중들의 테이프 절단과 시삽과 함께 본격 건립공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008년 6월 완공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교육원장 청화스님, 총무부장 현문스님 등 중앙종무기부관 부실장 및 국장스님, 불교신문사장 함적스님,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구자선 중앙신도회 고문 등 임직원, 윤원호 신명 통합민주당 국회의원과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백담사 공금 횡령 없었다”

### 주지 일문 스님 기자회견서 해명

백담사 공금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문 스님이 기자 회견을 열어 해명을 했다.

이와 관련 “백담사에서 본인이 주지를 맡은 이후 7년 동안 국고보조와 지자체 지원금은 5억여 원 정도 된다”며 “그러나 그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일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류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는 “일기 1년여 앞두고 후임자에게 재정문제를 투명하게 인수인계하기 위해 8월초 거래은행에서 ‘금융거래내역표’를 발급받았다. 재임기간 중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8월 11일부터 만해축전이 열리는 기간 바빠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그 사이에 서류가 분실됐다”고 밝혔다.

일문 스님은 “이번 투서는 본인이 분실한 서류를 습득한 누군가에 의해 각 언론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에 대해 현재 인재경찰서 정보과에 서류분실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상당액의 현금이 어느 시점(2006년 9월 18일)에 통장에서 출금된 것을 보고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러나 이 돈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됐을 뿐이며, 그 돈은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일문 스님은 “세간에서는 마치 본인이 거래를 횡령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서

에 동봉된 거래내역은 예금개설 명목이 아니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이 고의로 자료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덕과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일불교문화협, 흥법사 관련 소위원회 구성한다

### 사무총장 남정스님 등 6명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이사장 흥파)는 8월 2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부 흥법사 문제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사무총장 남정(총회총무위원장)·지원(조계종 사회부장)·양산(조계종 전 사회부장)·법종(보문종 총무원장)·송종(미륵종 총무원장) 스님과 진각종 총무부장 수성 정

사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흥법사를 관음종 사찰로 등기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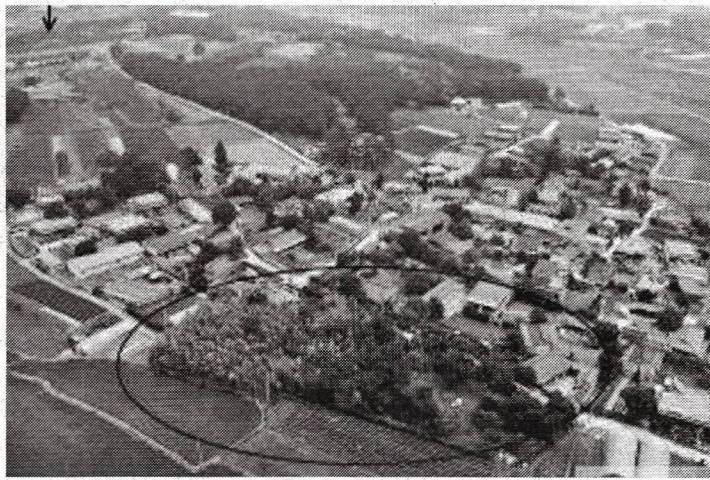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은 “흥법사는 관음종에 등기가 돼 있어 문제가 없으며, 취득 과정이 한일불교교류와 관계가 있으므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일문(조계종 군종교구장) 스님도 “한일불교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흥법사를 창건했으므로 한일 양국의 불교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흥법사 문제는 흥법사 주지 지섭 스님이 관음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 익산 제석사지 본격 발굴 착수

### 2009년까지 발굴 계속



◇익산 제석사지 전경.

백제시대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8월 30일 전북 익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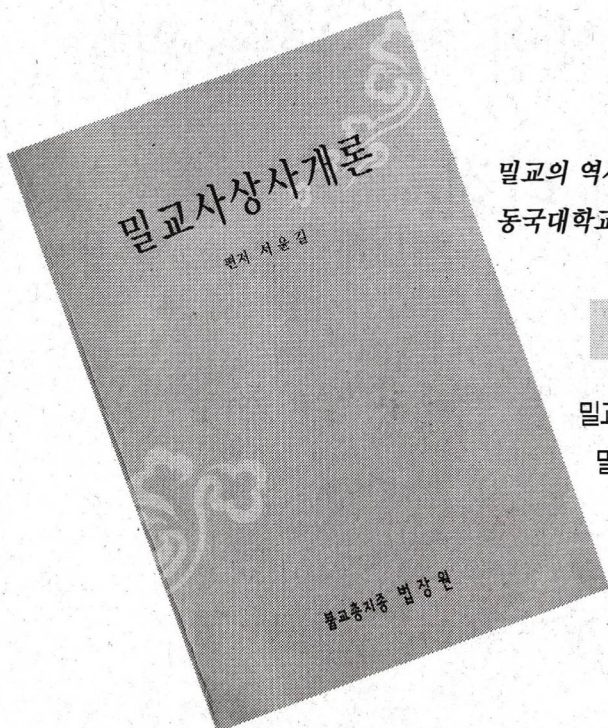
양곡면 제석사지에서 개토제를 개최했다. 발굴은 오는 2009년까지 계속되며 사역 중심부인 목탑지와 금당지, 강당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백제 30대 왕인 무왕(600~641년)이 수도를 금마로 옮기기 위해 세운 왕실 절로 추정되는 제석사지는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의하면 정관 13년(639)에 세워져, 같은 해 뇌우로 인해 불당과 낭방(廊房) 등이 모두 불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1993년 제석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해, ‘제석사(帝釋寺) 명(銘)’ 명문와 백제 당초문 암각새를 비롯한 7세기 당시의 기와를 다량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불에 탄 소조불상과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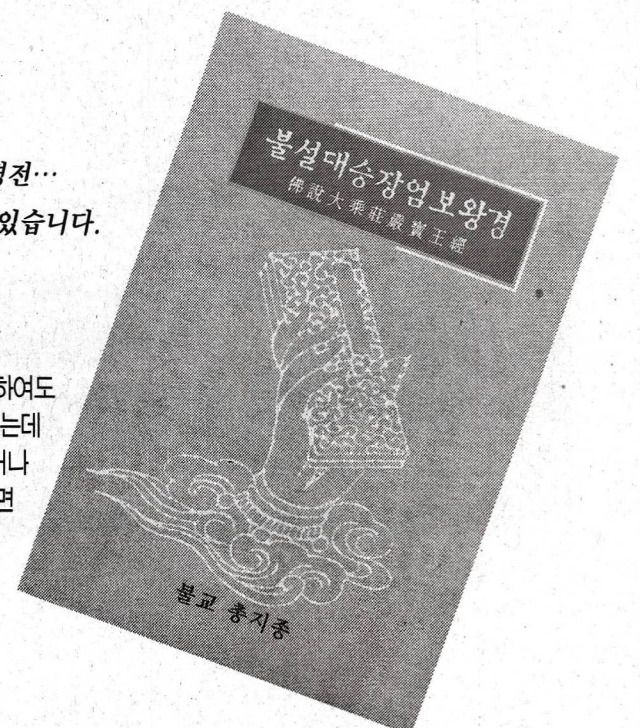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후>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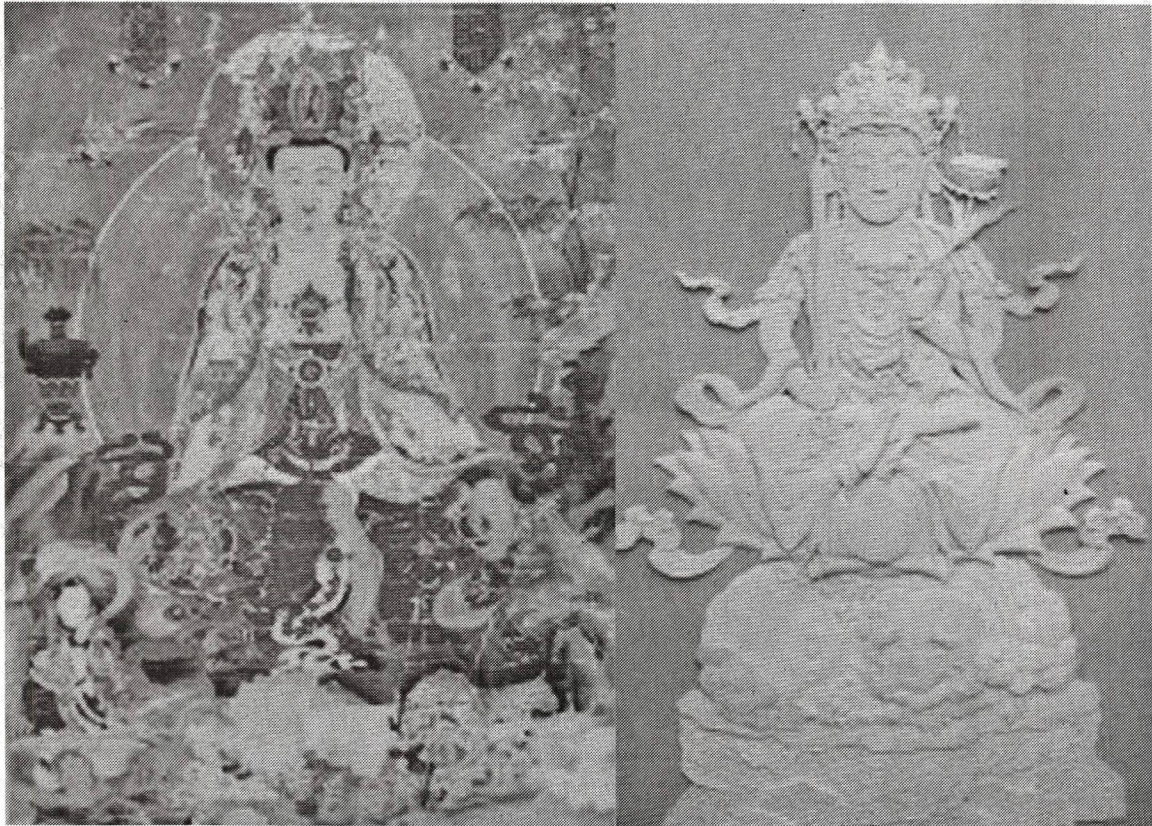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관음탱' '문수보살' 선정

## 총무원, 대상 수상작 없이 최우수 공동 수상 결정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작, 관음탱과 문수보살 종이조각.

한국불교미술인의 등용문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올해 수상작이 발표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27일 제2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에 최점복씨의 회화 '홍국사 관음전 관음탱'과 박명옥씨의 공예 '문수보살 종이조각'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불교미술대전에서는 최고상인 대상작을 뽑지 못하고 공동으로 2인에게 최우수상이 돌아갔다. 총 115점의 불교미술작품이 출품됐지만 최고상을 지정할만한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 불교미술대전에 대상작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1998년 제17회 불미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에서는 또 최우수상급 특별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이인호씨의 조각 '메시지(message) 2007'이 선정됐고 우수상 4점은 김광연씨의 '석가모니 불'과 임형철씨의 '석가모니' 등 조각품과 이범씨의 '님의 침묵', 장재원씨의 '미(美)' 등 공예품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문화재청장상인 특별상은 허락씨의 '화엄경'이 선정됐다.

이번 불교미술대전 수상작 45점은 오는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및 박물관 제1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시상식은 10월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갖는다.

### 경주시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학자 신라역사문화 조명

신라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경주시는 오는 11월9일부터 10일까지 보문관광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이틀간 신라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세계 속의 신라, 신라 속의 세계'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 외국 학자 7명과 국내 학자 20명이 참가한다. 학술회의에서는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전 일본 도쿄대 교수가 '신라사의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 황신추안(黃心川)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신라불교와 중국'에 대해 발표한다.

또 도널드 맥켈레함 미국 UCLA대 교수는 '신라와 동해'를 통해 초기 신라불교와 일본불교와의 관계를 조명하며, 팬크스 모한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신라 황룡사의 국제적인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에서는 문경현 전 경북대 교수가 '세계인 최치원'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며, 김리나 전 홍익대 교수는 '신라불교미술의 국제성'에 대해, 신형식 전 이화여대 교수는 '신라의교사절의 국제성' 등에 대해 발표하는 등 20여명의 국내 학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 생활상식

#### 부드러운 오믈렛 만들기

플레인 오믈렛을 만들 때, 계란 1 개에 마요네즈 1 작은술을 넣으면 폭신하고 부드러운 오믈렛이 완성된다. 눈기 쉬우므로 약한 불에 조리하고, 소금은 조금만 넣는다.

#### 샐러드에 드레싱을 무치기

채소 샐러드를 만들 때는 무침처럼 불에 채소와 드레싱을 넣고 무치는 것이 좋다. 끼얹지 않고 무치게 되면 드레싱을 끼얹을 때보다 적은 양(약 절반 정도)으로도 맛이 충분히 배어들고 칼로리도 낮출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간편하게 된장 풀기

된장을 거품기로 풀면 철사 사이에 된장이 끼여 오히려 번거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 않다. 거품기를 천천히 돌리면 된장이 국물에 녹아들 듯이 잘 풀린다.

#### 튀김 기름 정화하기

튀김에 여러 번 사용했던 기름에서는 거품이 나는데, 이것은 수명이 다 했다는 증거이다. 이 때는 매실 장아찌 1 개를 넣어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고온에서 튀긴다. 끈적한 기름이 놀랄 만큼 깨끗해진다.

#### 햄버거 포장지 재활용

햄버거를 먹은 다음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두자. 보온성과 내수성이 있어서 쿠키를 구울 때 깔개로 이용할 수 있다. 잠시 놓아두면 여분의 기름기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 적은 양의 레몬 즙 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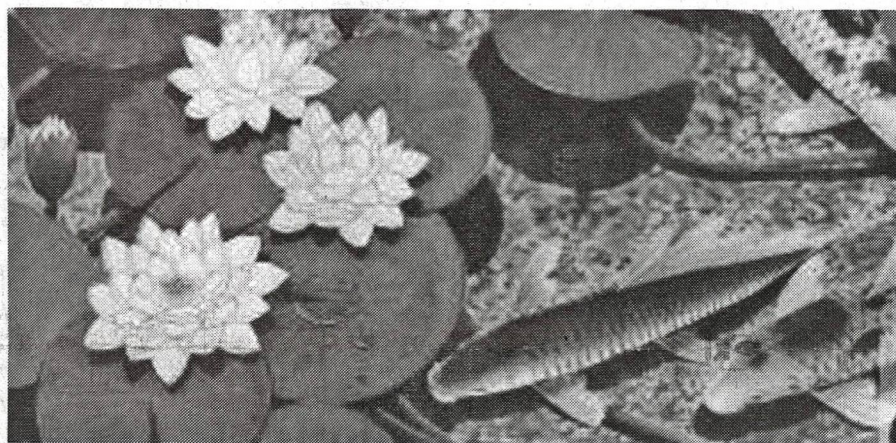
적은 양의 레몬 즙이 필요하면 병 뚜껑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먼저 금속제 뚜껑에 송곳으로 8 군데 정도 구멍을 뚫는다. 그런 다음 끝부분을 잘라낸 레몬에 뚜껑을 비틀어 꺾고 레몬을 누르면 필요한 만큼의 즙을 짜 수 있다.

#### 라면 먹을때 채소, 계란 꼭 곁들이세요

라면은 중량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이나 비타민, 무기질, 식이 섬유 등이 다른 식품에 부족하다. 라면에 계란을 넣고 양념을 듬뿍 치면 문제 해소!

## 성타 스님 '연꽃 그림전' 개최

부산 금정문화회관 2전시실 9월 8일부터 14일까지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표현한 출품작.

'정중동(靜中動)'을 화폭에 담아 '연화세상(蓮花世上)'을 펼친다. 불(佛)을 마음에 담듯 그림에 담아 30년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화(佛畵)에 매진한 부산 금강암 성타 스님의 개인전이 열린다.

부산 금정문화회관 2전시실에서 열리는 '연꽃 그림전'은 9월 8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14일까지 30여점의 그림들을 선보인다.

성타 스님은 이번 개인전을 맞아 '불교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과

깨끗하고 맑은 호수가 가운데 흐르는 잉어의 움직임을 통해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맑아지고 연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명한 원색을 담았으나 한지를 사용하여 전통의 맛을 살린 성타 스님만의 독특한 화폭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성타 스님은 1998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총 10회의 개인전 및 단체전, 초

대전을 열고 있으며 미술대전에서의 특선 및 입선 그리고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상경력이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얻는 수익은 문화 포교를 위해 사용된다. (051)519-5651

### 불교문화정보연구원 창립식

DB구축 대국민 불교서비스

불교문화 전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단체가 설립된다.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 창립식이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이이화 전 고려역사문화재단 상임공동대표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은 불교문화를 계승, 발굴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 대중에게 양질의 문화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올바른 문화재 소개 글란 바꾸기 운동' 등도 전개할 방침이다.

### 불교천자문 및 정토 회보 150회 발행 기념식

'불교천자문-4개 국어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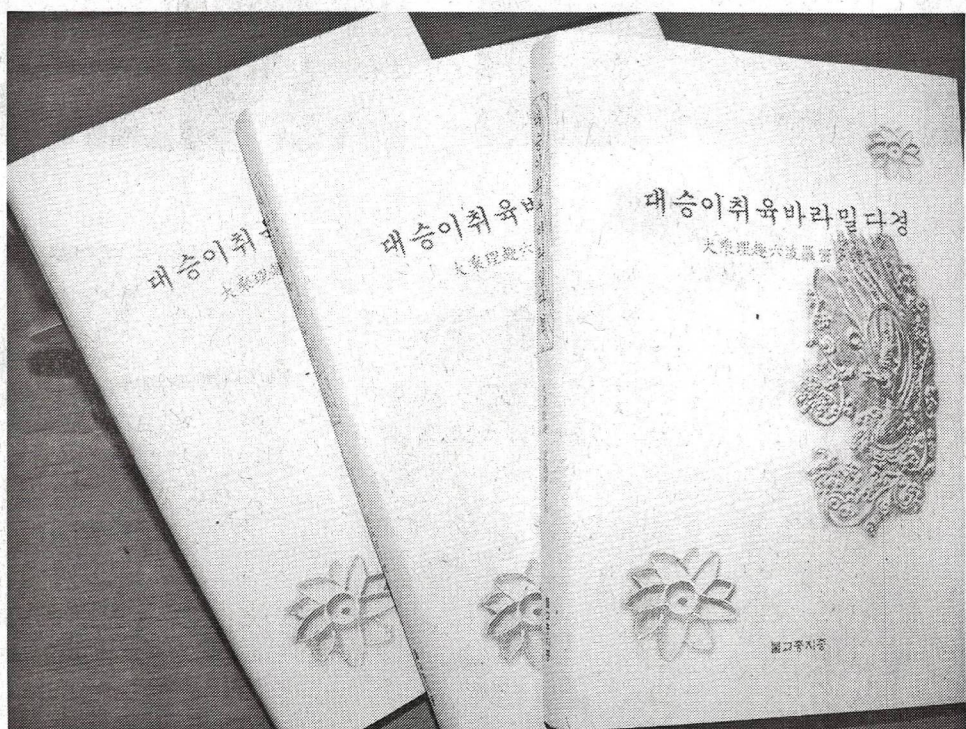
불교천자문 출판 기념법회.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불교천자문 출판 및 정토 회보 150회 발행 기념식'을 8월 29일 오후 7시 정토사 설립전에서 개최했다.

덕진 스님은 "불자들의 화합과 대화의 장으로 마련한 정토 회보가 150회를 맞았고 또한 <불교천자문>

은 한국의 불자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신행하여 지혜와 행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불교 천자문은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등 총 4개 국어로 정리됐다.(052)258-9944

##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인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 불교총지종

**총기 FOCUS / 제7회 경로법회**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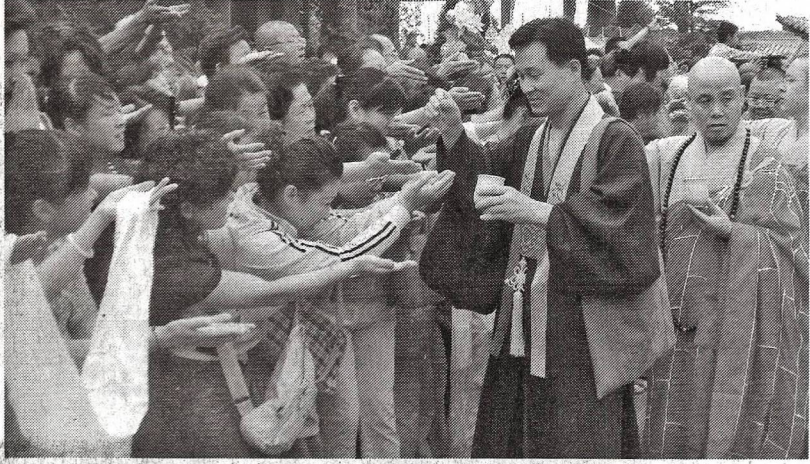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주호 리조트에  
 선 제7회 경로법회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 부  
 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 라는 주제  
 로 열린 이번 법회엔 전국의 여러 어르신들이 오  
 랜만에 한 데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교도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사원간 화합을 도모  
 하며, 경로사상도 고취한 아주 편안하고 흥겨운  
 한 때였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의 모습과 즐거웠던 장면을 지면  
 에 담아 봤습니다.  
 -편집자 주



# 중국 스님들의 청정 계행과 위대한 원력 본받아야

## 난주 보은사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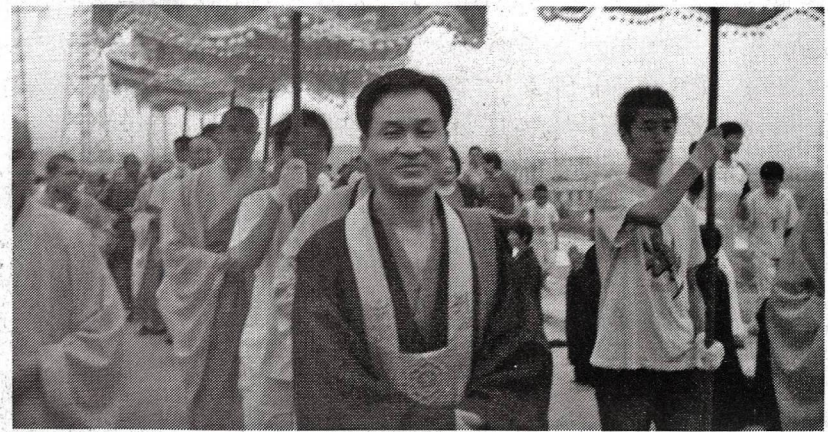
가지공덕수를 받으려는 중국 불자들.

중국불교협회 국제부 주임인 보정(普正)스님과의 인연으로 난주 보은사(報恩寺)를 방문하게 되었다. 난주는 중국 감숙성의 성도로서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변방지역의 하나로서 중국 전체로 보면 비교적 낙후된 곳이다. 보은사는 중국 감숙성 출신인 보정 스님이 원력을 세워 이룩한 절로서 이번에 사천왕전과 종고루의 낙성식을 겸하여 국내외의 지인들을 초청했던 것이다. 중국 유명 사찰의 방장들과 정관계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만여 명의 신도들이 몰렸으며 자원봉사자만 도 3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다. 특히 신도들의 열정적인 봉사 사

심은 불교의 세력이 미약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많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보정스님은 중국불교협회 국제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원광대에 유학 와서 전대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우리 돈으로 비교하면 150억 원 규모의 대불사를 일으켜 고향 난주에 엄청난 규모의 사찰을 건립했던 것이다. 그것도 불과 5-6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불사이니 부지런함과 원력에 머리가 수그러질 따름이다. 중국 스님들은 출가정신이 투철하여 계행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오직 불사를 일으키는 원력에

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스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다. 경제수준이 우리와는 아직 많은 차이가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사를 위한 보시금도 막대한 우리 돈 규모로 수천만원 씩 하는 것이 예사이다. 많은 불자들은 불사에 동참하는 것을 사는 데 있어서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항공료만 해도 어지간한 사람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 텐데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수천 리 떨어진 감숙성까지 와서 낙성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굳센 신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보은사 뿐만 아니라 중국 각처에서는 젊은 스님들이 대규모의 불사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스님들이

일으키는 불사는 규모가 커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정 스님은 평소 보은사는 그저 조그만 사찰에 불과하다고 겸손해 했는데 막상 가보니 대웅전이나 관음전 등의 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큰 규모였다. 더구나 불사에 모인 신도들의 숫자 또한 입이 벌어질 정도였으며 거기에 동원된 차량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한 스님의 발원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우리나라 불교도 중국 스님들의 이러한 원력과 신심을 본받아 불교중흥을 이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승대덕들과 함께 법회장에 입장하는 회령 정사

# 수능을 앞둔 아들에게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지난 지도 여러 날인데 8월의 늦더위가 꽤나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구나. 무엇이랴도 녹여 버릴 기세로 달구어져 이끌거리는 하늘을 보면 여전히 지독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서원당에서 바라보는 하늘 한 자락엔 가을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겠다.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시간은 또 저만치로 달아나고 있었구나.' 시간의 빠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는 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때문이란 걸 너와 같은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리라 싶다. 사실, 우리 아들이 그 힘들다는 '대한민국 고3'이 되리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짐작만 했었지 이렇게 빨리도 다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니? 우리가 수능 100일 불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 사이, 또 며칠이 지나고 보니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많은 엄마가 새벽이라도 잠신이 반짝드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고3 엄마'의 무거운 현실을 실감한다. 그나마 다른 수험생에 비해 조금은 덜 예민하고, 느긋해 보이는 네가 고

험하고 극복해나갈 수 있어 좋고 엄마는 엄마대로 너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며, 든직한 기동인지 새삼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런 마음 외에 평소 잘 느끼지 못하던 마음이 저절로 생겨 감사의 눈물이 마구 쏟아지던 날도 있었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 너를 더 잘 못한다고 달달 볶고 힘들게 한 엄마의 욕심, 좋은 일에 칭찬하기는 인색하고 작은 일에도 성냄이 더 많았던 엄마를 진심으로 참회할 수도 있었을지. 또한 불공을 하면서 매사에 부정적이기 좋아하던 엄마가 부처님 덕분에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생각으로 마음 바꾸는 공부를 하게 되니 더 좋은 일이지 않았겠니? 너도 비록 지금은 다소 힘들고 지치겠지만 최선을 다 한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겠지. 우리 둘 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돌이켜 보면 그때도 그렇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되었을 한다. 지치고 힘들어 하는 너를 위해서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구나.

# 부처님 덕분에 긍정적인 엄마로... 한계 극복하고 당당한 승리자 되길

마ureen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의 속마음은 많이도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 어릴 때부터 나이에 비해 항상 어른스럽고 의젓하던 그 속 깊은 표현이란 걸 말이다. 아들이, 당치가 유난히 크고 건강해서 어떤 것에도 잘 지친 기색을 하지 않는 네가 요즘 자주 피곤하다며 쓰러지듯 자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라며 짜증을 내던 날도 기억나는구나. 식구들끼리 식탁에서 이런 저런 대화하고 장난치며 웃어본 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식사만 끝나면 바로 일어서야 하는 현실이고 보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구나. 그래도 이런 고난의 과정이 결코 헛공을 하면서 느끼는구나. 너는 공부를 하면서 너의 한계를 시

부족하지만 그저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우리 아들이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원하는 것밖에는... 아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너무도 짧은 80여일!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구나.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 라는 너무도 많이 들어 봤을 거야. 정말이지 남은 기간에 너의 한계를 극복하는 당당한 '승리자' 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안달하고 잘 물어대는 엄마에게 "지금은 울지만 마지막에 엄마를 웃게 하면 될 거 아니요!" 당당히 큰 소리 치던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함영옥(부산 정각사)

# 세상사는 이야기

며칠 전 더운 날씨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인터넷 동아리 방에 들어가 보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회원이 올린 연꽃이 너무 아름답고 '관곡지'의 모습은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로 돌아간 듯,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이 곳에 올린 글에, 우리나라에서 연꽃을 처음 재배한 곳이라 하여 더욱 관심이 깊어졌다. 곧 전화 통화로 "그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도 불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는 흔쾌히 우리의 부탁을 받아 주었다. 나이는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마음 씩씩이는 그 누구보다 크고 넓다. 날씨 약속을 하고 그의 차로 우리들을 안내 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을 기다리는 동안 설레는 마음 누를 길이 없었다. 군에 간 사랑하는 아들 첫 번째 휴가 날을 기다리듯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애뜻한 친구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여행을 떠나듯이 떠났다. 장소는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관곡지'이다. 가는 동안 비는 계속 오다 말다

했다.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뚫린 듯, 물을 쏟아 붓고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과연 연꽃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한가지 위안은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인 것이다. 도착해 보니 굵은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사진작가들이 많았다. 먼저 '관곡지'를 보기로 했다. 지은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

운 우리 한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고즈넉하고 조용한 한옥 뜰에 아담한 연못이 '관곡지'가 있다. 이곳은 안동 권씨 문중의 사유지라 한다. 빗속의 '관곡지'는 더욱 애잔한 아름다움이 있다. 연못 가운데에는 소나무가 있는 작은 섬도 있다. 우리나라 선비의 기상이 보이는 듯하다. 이곳은 조선 전기의 명신이며 농학자로 널리 알려진 '강희맹' (1424-1483)선생이 세조 9년 '진헌 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 올 때 남경에 있는 '전당지'에서 연(꽃)씨를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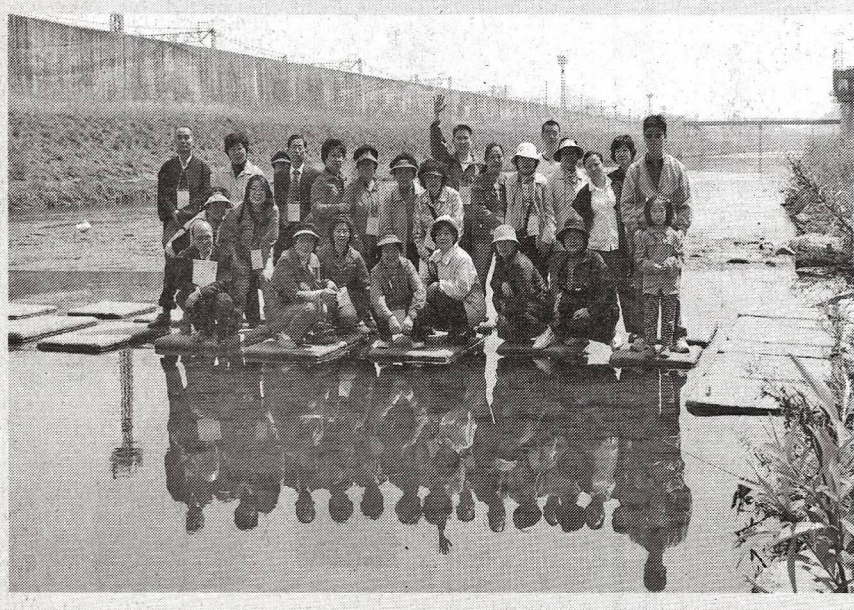
고 들어와 그의 사위인 '권민형'에 의해 지금의 하중동에서 재배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연 재배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 연못은 '강희맹' 선생의 사위인 '권민형'가에서 대대로 관리 되어 오고 있다. 쏟아지는 비에 연꽃사진 몇 장 찍기도 힘들었다. 벌써 점심때가 되어 연일국수와 연일부침개, 연일병면을 먹고 연일차도 마셨다. 오늘은 후회 없이 연꽃에 꼭 빠져보는 날이다. 점심 식사 후 시흥시에서 만든 연꽃 테마파크로 향했다. 멀리 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인다. 두 분이 똑 같이 녹색의 비옷을 입으시고 각자 카메라 한대씩을 삼각대에 걸어 놓고 열심히 연꽃을 촬영 하시다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며 여유롭게 계시는 모습이 우리들이 원하는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 옆에는 내 시선을 사로잡은 한 송이 연꽃이 있다. 꽃잎을 다 펼치고 오직 한 잎만 붙잡고 있는 연꽃, 어이하여 다 버리지 못하고 남은 한 잎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일까? 조용히 귀에 대고 그 사연을 들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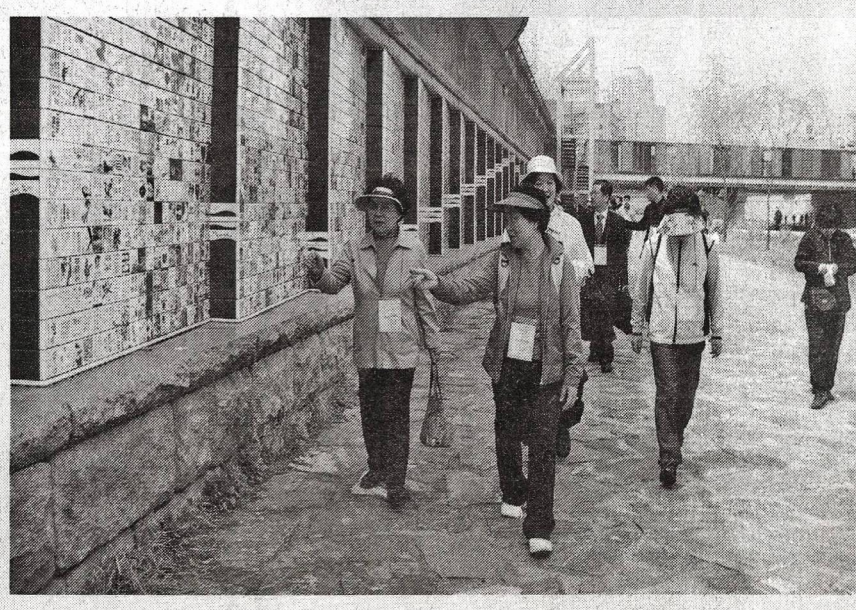
했다. 연꽃 모두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찬 비바람에 연꽃들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물기를 잔뜩 머금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연꽃은 그 나름대로 새색시 같이 아름답다. 연 잎 위의 물방울은 마치 크리스탈 같이 빛나고 있다. 연잎을 손으로 빙빙 돌려 보니 물방울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다가 포르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로 뭉쳐 지기도 한다. 이 곳은 종류가 다양해서 처음 보는 신기한 연꽃도 많았다. 노란색 연꽃도 처음 보았다. 그들 막 밑에 잠시 앉아 지친 다리를 쉬어 본다. 이 많은 종류의 연꽃 중에 '심청이'는 어떤 연꽃을 타고 용궁에서 나왔을까? 연꽃에 사뿐이 앉아 있는 '심청이'를 그려 본다. 이 곳에 앉아 있으려니 비가 와도 좋고 햇볕이 비쳐도 좋다. 연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다. 행복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 한 무엇이 더 있을 것 같다. 모든 잡념 다 놓아 버리고 몇 날, 몇 일, 하염 없이 앉아 있고 싶다. 그대로 연꽃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 박묘정

# 자비신행회, 건강 걷기대회 안내

자비신행회에서는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주제로 건강 걷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부 행사: 양수리 건강 걷기
- 2부 행사: 가을 풍경 담기(카메라 지참)
- 참가대상 : 워드극 가족, 교도, 일반인 누구나
- 일 시 : 2007. 9. 14 (금)
- 장 소 : 경기도 양수리
- \* 당일 오전 10시까지 전철 1호선 회기역 앞에 집결, 기차를 타고 갑니다.
- \* 점심, 간식. 물은 각자 준비하여 지참하세요.
- \* 참가비: 1만원 (어린이·학생은 참가비 없음)



# 원정대성사(苑淨大聖師) 탄신 100주기- 멀도절 특집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숭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약력과 사진, 유고(遺稿) 등을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현대한국밀교의개척자

### 원정대성사(苑淨大聖師) (1907.1.29~1980.9.8)



원정 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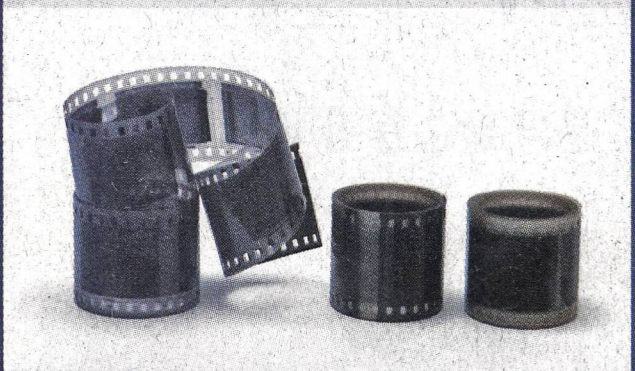
대성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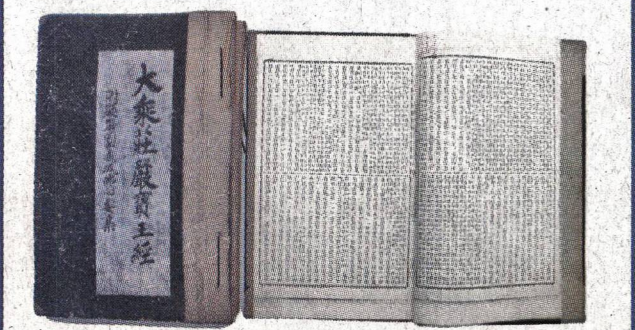
공덕비 앞에서.



대성사 생가터 사랑방.



국립도서관 장서촬영 필름.



대승장엄 보왕경.

총지종 창종조 원정 대성사(苑淨大聖師)의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 휘(諱)는 정우(禎祐)이다.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아버지는 손기현(孫基賢) 씨이고, 어머니는 이근호(李根浩) 씨이다. 대성사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면이 많았으며, 명리에는 뜻이 없고 정의감에 투철하였다 한다. 관계(官界)와 교육계(教育界)에 종사했으며, 불경에 심취, 일본과 중국을 권력하며 불교연구에 몰두하였다. 그후 구국과 중생제도의 뜻을 세우고 호국불교를 통한 교화방편을 주장하였으니 밀교종 창종이 그것이다.

#### 정통밀교 확립에 진력

대성사는 진각종의 개조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당 조사의 입적 후인 1963년부터 진각종 총인의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후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던 중 현행수행체계에 오류를 발견하고 <중제관음법>을 발굴, 그 시행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성사는 1972년 1월 1일부터 국가안보와 정법봉독(正法奉得), 입교개종(立教開宗)을 위한 서원으로 100일 정진에 들어 갔다. 같은 해 8월엔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391번지 5호로 이거하여 서울 선교부를 개설하고 비밀의궤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또 동년 12월 개종불사 및 참교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종명을 총지종(總指宗)으로 결정했다. '총지'라는 뜻은 총지, 즉 다리니로써 진언행자와 모든 중생을 지도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개종기원(開宗紀元)이 총기원년(總紀元年)이 되었다. 이후 원정 대성사는 정통밀교의 교상과 사상의 정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삼밀의궤(三密儀軌)와 사중수법(四種修法) 및 진호국가법(鎭護國家法)을 선포했다. 대성사는 창종전인 그해 1972년 9월 9일 비밀의궤법을 제정하였다. 현밀원통심요집(顯密圓通心要集) 가운데 밀교심요(密教心要)의 사중

수법을 발췌하여 한글로 번역 배포 하였던 것이다. 또 종단 교의(敎義)의 상징이자 종지(宗指)를 표시 하는 육합상(六合相)을 창안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준제관음상(準提觀音像)과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를 채택하려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대성사가 창종원년에 이룩한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역경편찬 사업이었다. 종단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전 4권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 전 10권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밀교장경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와함께 현밀(顯密)의 경전에서 요목별로 발췌 번역하여 불교총전(佛敎總典)이라는 제명으로 총지종의 교전(敎典)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다. 또 총지종의 신앙대상이 본존과 불사의식, 법의, 금가사 등을 제정 발표하고 창종 준비를 해 나갔다. 창종을 앞두고 법회를 위한 도량도 마련하였다. 현재의 사원 전신인 선교부를 전국 각지에 여러 곳 개설하고 마침내 1972년 12월 24일 밀교종의 창종이 이루어 졌다.

이와함께 대성사의 교의 선포도 있었다. 법신(法身) 법신여래(大日如來)를 교주(敎主)로 하고, 육자대명(六字大明)을 본존(本尊)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을 소의경전으로 하였다. 또한 태금(胎金) 양계(兩界)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육행(六行)을 수행 덕목으로 삼았다. 당시즉도 색심불이(當相即道 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 함으로써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였다. 시시불사 처처불공법(時時佛事 處處佛法)으로 생활시 불법 불법시생활(生活時佛法 佛法時生活)의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후 1973년엔 8개 선교부를 개설하고 자성일 회향서원과 교도맹약 등을 제정하였다. 교도맹약은 부처님의 가지력에 일심 귀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오세대

제도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1974년 이후 5년 동안은 종단 제도를 더욱 확립시키는 시기였다. 종단의 각종 기구와 직제를 구성하고 승단의 강공회(講工會)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보은시법(報恩施法)의 실시, 재단법인의 설립, 자성일 대중동참불사법요 및 진택불사법요 등을 제정하고 오대서원과 회향문을 작곡하여 공식시간과 기타 의식에 사용하게 했다.

대성사는 1974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칠일간 종단등록과 재단설립허가를 위한 철야정진에 들어 갔다. 종단운영과 회계인사 등 중무일체를 투명하게 하고 불합종포와 정재수호를 위한 뜻이 담겨 있었다. 대성사의 공명정대한 자세와 청정수행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종단발전 위해 부단한 정진

1975년에는 진호국가불사위계 제정, 천도관정법 실시, 불교총전 초판 발행, 승직법제정, 자성학교 개설, 법장원 개원, 투명단중법 실시, 찬불가 제작 완료 등의 불사가 이루어 졌다. 1977년에는 총본산 총지사 건립불사, 신축사원 건물 옥상에 법신불의 상징인 일체위상 건물, 밀교장경 초판 발행, 성불탑을 건설하였고, 1979년 총지대학 건설기금 조성, 각종 진언결인법 채택, 등을 실시했다.

대성사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중비법(四種秘法)의 창안, 오세대제도법(五世帶濟度法)시행 등으로 교상과 사상을 더욱 체계화하고 교화방편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승의 인사이동과 신규스승을 임명을 통해 활발한 교화활동이 가능케 했다. 즉 제도와 의궤 정비 이후 본격적으로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창종 8년이 되던 해인 1980 9월 8일 원정 대성사는 종단발전의 무수한 불사들을 남겨 둔 채 열반에 들었다.

이와같은 창종역사와 원정 대성사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성사의 종단발전을 위한 정진과 노고를 여실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서원코 제도할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가 가이 없으니 서원코 끊을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법문이 다함이 없으니 서원코 배울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없는 참 도를 서원코 이를 것이다.  
▶ 말이 패역하게 나가면 또한 패역하게 들어오고 재물이 패역하게 들어오면 또한 패역하게 나간다.  
▶ 회사공덕은 어떠한 것이냐?  
답: 현재에는 곤란재앙 우환질병을 미리 없애서 소멸하고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드러난 상벌 보다 보이지 않는 화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크며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동글고 차면 나의 집도 넓고 크고 동글고 차느니라.

▶ 경에 이르되, 남의 악한 것을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하여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답: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 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참회하면 나의 허물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곧 없어지느니라. 나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다. 인이 없으면 과가 없을 것이니 나의 적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 부처님이 탄생하시와 곧 일곱 자국을 동쪽으로 걸음하시오 이 같은 말씀을 하시오되 나는 사람과 하늘과 이수라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가장 우이라 하시다.[열반경]

이제 이 세계는 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중생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다. 이제 이곳에 모든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내야 능히 구호하리라.[열반경]  
▶ 부처님이 말씀하시오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운탁하게 함과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 고통을 떠나게 하고 인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케 함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이지 말며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재물을 도적질 하며 자기의 아내를 사하거든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하지 말며 자기 말의 신음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를 속이지 말며 자기에 화합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에게 이간을 하지 말며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거든 탐욕을 내지 말지니라.



원정 대성사 영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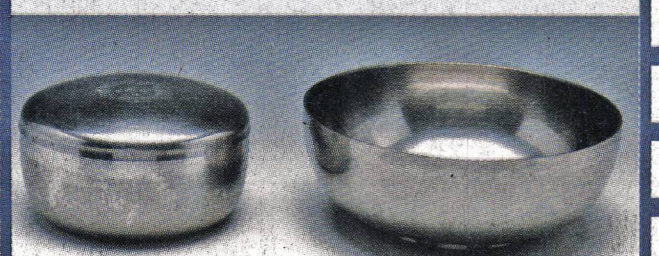
영결식2.



영결식3.



영결식 치량 행렬.



원정 종조 유품.



원정 종조 유품2.



원정 종조 유품3.